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매파 연준보다 강력한 반도체 강세

- 미국 증시, 반도체주 중심으로 반등: PHLX '최고가'
- 호르무즈 해협 개방..유가 하락 전환
- 매파적 연준에 7월 금리 인상 베팅 급증

Summary

미국증시 일제 강세: 나스닥 +1.91%, 러셀2000 +2.12%

6월 18일(현지 시각) '준 틴스 데이' 휴장을 하루 앞두고 선물옵션 만기를 맞은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전일 연준의 매파적 선택을 확인했음에도 일제히 상승.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중동 긴장 완화로 인한 에너지 수송 병목 해소,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강세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4% 상승한 51,564.70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08% 상승한 7,500.58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1.91% 상승한 26,517.93에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 100 지수는 2.48% 상승한 30,406.19에 거래를 마칩. 중소형주 상승세도 도드라져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2.12% 상승한 2,979.76으로 3,000선에 바짝 다가섬.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11.06% 하락한 16.40에 거래를 마칩.

(다우 +0.14%, 나스닥 +1.91%, S&P500 +1.08%, 러셀2000 +2.12%)

FOMC 후폭풍..채권시장 조기 금리인상 베팅 급증

전일 이틀간의 회의 결과 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한 FOMC 이후 채권 시장 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높아짐.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이번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점도표를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고 인플레 전망치도 대폭 상향해 매파적 시각을 뒷받침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치 2%로 되돌리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고용보다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의 우선 순위로 내세움. 이후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급증했으며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연방기금금리(FF)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함. 특히 8월 만기 연방기금금리 선물의 미결제약정이 하루 사이 67,000계약 증가. 8월물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오는 9월 FOMC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미결제약정 증가는 투자자들이 7월 31로 예정된 다음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새롭게 베팅하고 있음을 보여줌. 반면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했던 포지션은 빠르게 축소되는 중.

영국 중앙은행(BOE)은 이날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했음. 통화정책 위원 9명 중 7명이 금리 유지를 지지했으며 2명은 0.25%p 인상 의견을 내 시장

전망에 부합했음.

다시 열린 호르무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두 달여간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휴전 이행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재개방, 원유 수송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이날 미군 중부사령관은 엑스(X) 계정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 항만과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를 풀었다고 밝혔으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란이 최근 이틀 연속 호르부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하루 사이 1,25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도 덧붙임. 이란 역시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통항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최고 국가 안보회의 명의 성명을 통해 밝힘. 다만 이란은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해협 주변에는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힘. 이에 전일 상승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 전환했으며 장 중 WTI 기준 4%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음. 물론 통항 정상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또 실제 선사들은 여전히 해협 통항을 꺼리고 있다는 점 등은 유가 하락폭 축소 원인으로 작용.

한편 양국은 향후 60일간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제재 완화 조건 등을 포함한 핵협상을 진행함. 다만 우라늄 농축과 검증 체계 등을 포함한 복잡한 사안들을 두 달 안에 타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전주 대비 감소

미국의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6천건을 기록해 전주 대비 4천건 감소함. 이는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예상치였던 22만 5천건보다 1천건 많은 수치로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것.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81만건으로 집계돼 한 주 전에 비해 2만 4천명 증가했음.

이는 최근 미국 기업들의 해고 규모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노동 시장이 건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방증인 한편,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즉 고용과 해고 모두 다소 정체된 상황임을 보여줌.

미국 증시는 금요일(현지시각 6월 19일) ‘준 틴스 데이(노예 해방 기념일)’를 맞아 휴장함.

특징종목

반도체 강세(ft.애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42% 급등. 전일 팀 쿡 애플 CEO의 발언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이 더해져 반도체주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전일 팀 쿡 애플 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우리에게 전가 되는 막대한 비용 상승분을 흡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힘. 이는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메모리와 저장장치 반도체 가격의 급등에 따른 것으로 쿡 CEO는 특히 AI 서버용 HBM 생산 확대가 일반 소비자용 D램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 부분은 당사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메모리 가격의 하단 방어&지속 상승 전망, 나아가 HBM 가격의 추가 상승 전망 논리와 일치함)

쿡 CEO의 이 같은 발언은 메모리 가격 전반의 추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 전일 한국증시에서 삼성전자(+5.98%), SK하이닉스(+7.87%)의 급등 요인이 됐으며 이날 미국증시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8.70%)와 샌디스크(+11.54%), 웨스턴디지털(+5.52%) 등의 강세로 이어짐.

한편 또 다른 주요 인사의 발언도 이날 반도체주 급등세의 배경이 됨. 다음 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데,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애플(+0.70%)이 미국에서 자사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인텔(+10.64%)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앞서 지난달 양사가 반도체 생산을 위해 협력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내용이 확인된 셈.

엔비디아(+2.95%), 브로드컴(+4.70%), AMD(+4.86%), 텍사스인스트루먼트(+6.95%), 퀄컴(+6.17%), NXP 세미컨덕터(+5.05%), 온 세미컨덕터(+7.71%), 램 리서치(+3.97%),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4.08%), KLA(+8.72%), 코닝(+11.13%) 등 반도체 섹터 내 메모리, 스토리지, 아날로그 반도체, 장비, 소재 등 대부분 종목군이 강세 마감.

VANECK SEMICONDUCTOR ETF(SMH)(+5.76%), INVESCO PHLX SEMICONDUCTOR ETF(SOXQ)(+6.27%), ROUNDHILL MEMORY ETF(DRAM)(+9.66%) 등 관련 ETF도 큰 폭 상승.

소프트웨어주 대체로 약세

한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반도체주로의 수급 쏠림 속에 대체로 약세. 글로벌 IT 컨설팅 대기업 액센추어(-17.97%)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중동과 그 외 지역의 컨설팅 사업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기 매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 수준보다 낮게 제시한 것도 소프트웨어주 전반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액센추어는 전분기 이란 전쟁 영향으로 중동 사업에서만 4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진행 분기에도 추가적인 충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함. 이는 전쟁이 전세계 기업들의 실적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사 CEO는 “전쟁의 간접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주 사이의 일”이라고 말함.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렇지 않다고 컨설팅 업종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주 전반의 기업 가치에 부담

이 되는 가운데 전쟁으로 이들 기업의 고객사들이 비용 지출을 줄이고 있음이 이번 액션추어 실적 발표로 확인된 만큼 경쟁사 인포시스(-9.66%),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스(-10.49%), IBM(-5.05%)를 비롯 워크데이(-4.02%), 세일스 포스(-2.09%), 서비스나우(-0.46%), 어도비(-0.57%), 데이터도그(-1.60%) 등의 소프트웨어주가 대체로 약세 마감.

유가, 금속 가격 하락의 종목별 영향

이란과 미국이 중동 전쟁 종식에 합의하고 향후 60일간의 핵협상에 들어가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는 소식은 국제유가 수준을 낮추고 있고 이는 에너지주 약세로 이어짐. 엑슨모빌(-2.08%), 쉘(-2.22%), 코노코 필립스(-3.12%), EOG리소시스(-2.45%), 옥시덴탈 페트로리엄(-2.30%), APA(-2.65%)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 반면 델타 에어라인스(+2.35%),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2.81%), 에어비앤비(+1.33%), 노르웨이 지언 크루즈 라인 홀딩스(+3.08%), 카니발(+3.21%) 등의 항공, 여행, 크루즈주에는 비용 부담 완로 강세 요인.

한편 달러 강세는 금과 은, 구리 등 주요 금속 가격의 약세와 관련주 약세로 이어짐. 프리포트 맥모란(-0.55%), 뉴몬트(-1.78%), 퍼스트 머제스틱 실버(-2.96%), 배릭 마이닝(-2.30%), ISHARES MSCI GLOBAL GOLD MINERS ETF(RING)(-2.37%) 등.

철강 제조업체 스틸 다이내믹스(-7.49%)는 월가 전망을 하회한 현재 분기 실적 가이드언스를 제시한 후 급락.

이외 특징주

스페이스X(-3.56%)는 사상 최대 기업공개에 이어 첫 회사채 발행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전일에 이어 이틀째 하락을 기록.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가 발행을 계획한 채권 규모는 최소 2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조달 자금은 2027년 9월 만기인 200억 달러 규모의 임시 브리지론을 차환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보도.

이날 심장 건강 관련 바이오 기업 카디건(KARDIGAN)(+37.50%)이 나스닥 글로벌 마켓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 첫 거래에서 급등. 심혈관 질환 관련 정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카디건은 지난 분기 5,61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상장에 앞서서는 최소 12개월간 운영 자금을 댈 현금 보유고가 없다고 공개했던 바 있음. 이번 IPO를 통한 자금 조달 이외에도 향후 추가 자본 조달 가능성이 열려 있는만큼 투자자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의 극심한 전력난을 해결할 1.5기가와트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기지가 미국 오하이오주에 들어선다는 소식. 미국 SMR 개발 스타트업 엘리먼트 파워는 GE 베르노바(+5.80%) 히타의 300메가와트 급 원자로 5기를 도입하는 부지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오클로(+4.00%), 뉴스케일 파워(+13.54%) 등도 동반 강세. 뉴스케일 파워는 SMR 전력 모듈용 안전 시스템 최종 설계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디 웨이브 퀀텀이 세계 최초의 오류 인식형 양자 시뮬레이터를 발표하는데다 아마존이 향후 5~7년 이내 상업용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자 일제히

상승. 아이온큐(+3.40%), 디 웨이브 퀴텀(+7.72%), 리게티 컴퓨팅(+5.51%), 아킵 퀴텀(+7.88%), 퀴텀 컴퓨팅(+10.13%), 인플렉션(+1.42%).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금등락 끝 보험권 마감

국제유가는 전일의 반등세와 달리 장 중 급락하기도 했지만 저점에서 낙폭을 줄이며 반등하는 등 혼조 양상.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1,250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했다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 그리고 대이란 해상 봉쇄를 모두 해제했다는 미국 중부사령부의 발표로 국제유가는 WTI 기준 4% 이상 하락하기도 했음. 그러나 보험, 수리, 제재 완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완전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현실적 제약과 선박 회사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는 낙폭을 줄여 보험권에 혼조세를 보이다 마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25% 하락한 배럴당 76.60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8월물은 0.19% 하락한 배럴당 79.85달러를 기록.

국제 금가격은 전일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 이후 하락. 시카고 파생 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 선물 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3% 이상 하락한 트로이 온스 당 4,245.90달러에 거래돼 5거래일만에 약세 전환.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6% 넘게 하락해 온스당 66달러대 초반을 기록. 구리, 옥수수, 밀, 대두 등 금속과 농산물 가격 대부분이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칩.

국채금리 급등 이후 숨고르기

미 국채 금리는 전일 급등에서 벗어나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등 숨 고르기 양상. 영국 중앙은행(BOE)의 금리 결정에서 특별한 매파적 신호가 나오지 않자 일단 단기물에서의 금리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됨. 오전장에서는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모든 만기물에서 금리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후반 유가 움직임과 함께 이 흐름은 약화되거나 일시 반전되기도.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보험권에서 등락하다 0.8bp 하락한 4.1767%를 기록했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3.4bp 하락한 4.4533%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3.4bp 하락한 4.8976%를 기록.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13% 내외로 가격에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을 36%,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을 34% 내외로 반영. 세 번 이상 인상할 가능성도 16%까지 뛰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0%로 집계됨.

달러 가치, 13개월래 최고

미 달러화 가치는 이틀 연속 상승해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이날 통화정책 결정회의

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특별한 매파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은 BOE의 기조에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 파운드화는 보궐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도 약세 요인으로 반영. 여기에 달러-엔 환율이 2년여만에 최고를 기록, 엔화 약세 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달러의 상대적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매파적 시각을 분명히 드러낸 연준 FOMC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100.792으로 0.7% 상승해 지난해 5월 이후 최고를 기록. 장 중 101선에 육박하기도 했음.

파운드-달러 환율은 0.64% 급락, 달러 강세와 파운드 약세를 반영. 달러-엔 환율은 161엔을 뚫고 161.432엔까지 올라(엔화 가치 하락) 지난 2024년 7월 이후 약 2년만에 최고를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527.1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2.90원 상승한 1,540.0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20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1.10원 상승한 1,537.00원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